

고향에 기부하면 소득공제 받고 특산물 선물

## 지자체 “고향세 도입해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새 모델  
고향기부금제 법률안 추진  
전남 출향민 295만명 달해  
광주 자치구·전남 중소도시까지  
적용 대상 확대 주장도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새로운 모델인 ‘고향세’(고향기부금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전남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향세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각 정당도 고향세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하지만, 현행 고향세 법률안은 농어촌 지역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재정력이 취약한 도시지역 지자체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의 법안 발의를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기부금 중심의 고향세 도입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지난 7월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소속 의원과 수도권 지역구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지 주

목된다.

‘고향 기부제’로 불리며, 기부금을 내면 기부지(출향민)는 일부 소득공제를 받고, 고향(지자체)은 재원을 확충할 수 있어 농어촌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남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향세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5월 전국 시도의회의장단도 고향세 도입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이는 지방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데다, 지자체에서 기부자에게 지역특산물 등을 담례하면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전남의 출향민은 295만명으로, 이들이 소득세의 10%가량을 고향세로 기부할 경우 연간 529억원 등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추산된다.

20대 국회에서 고향세 법안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은 이 제도가 ‘기부금’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지방세를 거주 지역에서 고향 지역으로 옮기는 방식이어서 반발이 컸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전남 출신 출향민이 서울에 낼 지방세를 전남에 내는 식이었다.

이는 강제성이 필요한 세금을 개인이 마음대로 옮긴다는 점, 지자체들이 거두는 지방세를 제로섬 양상으로 만드는 점 때문에 현실화되기 힘들었다.

**?** 고향세

일본에서 9년 전 후쿠사토(故郷) 납세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지난해에만 모두 1조6000억여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본인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최소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거주지 주민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개인 의사로 내는 기부금은 내는 곳을 자신이 정할 수 있으며,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제로섬으로 인식하지 않는 점이 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방 및 농어촌지역의 재정력 상승 효과, 기부지역에 대한 관심도 증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활성화 등을 긍정적 측면으로 분석했다. 반면, 조세의 수익자부담원칙 위배, 조세와 기부의 차이로 인한 혼란, 도시지역 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등을 부정적 측면으로 꼽았다.

광주전남연구원 김봉진 책임연구원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일본의 제도와는 달리 조세방식이 아니라 기부금 방식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하지만, 기부대상을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할 점, 기부금액의 공제(소득 또는 세액)방식, 기부금 납부방식, 기부금 운영주체 및 운영비용의 분담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천 풍선인형 “예술은 하나” 13일 오후 광주공원 앞 광주천에 ‘제7회 광주예술 아트페스티벌’ 프로그램의 하나로 설치된 예술 풍선인형이 시민들을 반기고 있다. 광주예총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5일까지 공연·체험·심야영화 상영 등을 진행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전남 국회의원 4명 운명 법정으로

광주지검,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253명 입건·151명 기소  
박준영·이용주 본인 기소... 의원 2명은 회계책임자 기소

**검찰, 현역의원 33명 기소**  
**새누리 11·더민주 16**  
**국민의당 4·무소속 2명**

4·13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4명의 정치 운명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관련기사 3면〉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과 이용주 의원(여수갑)은 당선자 본인이 불구속 기소됐고,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과 손근주 의원(나주·화순)은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책임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모두 국민의당 소속이다.

박 의원은 역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고, 이 의원은 여수시청 각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선거부정방지법)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과 손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했거나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인은 당선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 광주지검은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53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1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19대 총선 대비 입건자가 28.6%(353→253명) 줄어든 것이다. 위반 내용은 금품선거가 2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흑색선전(22.6%), 폭력선거(3.1%), 불법선전(0.8%) 등의 순이었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20대 총선 사

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오후까지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모두 33명의 현역 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의 질의를 받고 “현재까지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는 의원 본인이 기소된 경우만을 집계한 것으로, 의원 배우자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이날 오후 늦게 기소되는 현역의원 등을 포함하면 숫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노벨문학상에 ‘가수 시인’ 밥 딜런

한림원 “가요 역사에 새로운 시적 표현 창조”

올해 노벨문학상은 미국의 가수 겸 시인 밥 딜런(75)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노래하는 음악가 시인으로 유명한 밥 딜런을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의 노래 가사는 미국 고교와 대학의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문학적 가치를 인정 받을 만큼 깊은 울림을 지니고 있다. 시적인 가사 때문에 그는 몇 해째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1941년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미네소타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그룹 ‘Bob Dylan & Grateful Dead’ 멤버로 활동했다. 2006년 제48회 미국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뮤직비디오상을 수상했으며 2008년 제92회 폴리처 특별감사상을 수상했다.

글쓰기에 남다른 재능을 지닌 밥 딜런에게 그가 직접 쓴 자서전은 2004년 뉴욕 타임스가 뽑은 올해 최고의 책에 선정되고 내셔널 북 어워드(National Book Critics Circle Award)를 수상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本 社 人 事

▶박지경 : 편집국부국장  
겸 정치부장

(10월 14일자)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